

이레 “나를 더욱 사랑하고 응원하는 법 배웠다”

수목극 ‘안녕? 나야’에서 최강희와 2인1역 호흡

첫 주연 맡으며 아역에서 기대주로 자리매김

“안녕? 나야”를 촬영하며 20년 후 내 모습을 자연스럽게 그리게 됐어요. 미래에 기대한 내 모습이 아니어도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시청자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위로받고 성장하는 시간이었어요.”

배우 이레가 최강희와 2인 1역으로 호흡을 맞추며 KBS 2TV 수목극 ‘안녕? 나야’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지난 8일 막을 내린 드라마는 연애도 일도 꿈도 모두 뜻밖이지근해진 37살의 주인공 반하니(최강희 분)에게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고 모든 일에 뜨거웠던 17살의 내(이레)가 찾아와 위로해 주는 이야기다.

9일 화상으로 만난 이레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위로해준다는 큰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나 또한 큰 위로를 받았다”며 “이렇게 좋은 작품에 함께한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웠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첫 주연을 맡은 작품으로 개인적인 의미도 남다르다. 이레는 “이번 드라마를 통해 주연배우로서 극을 이끌었다. 처음에는 부담도 됐지만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며 “다른 배우, 제작진들과 감독님께서 재밌는 촬영 환경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잘 마무리 지은 것 같다. 끝났다는 속 시원함보다는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돌아봤다.

이어 “연기할 때 주로 기본적인 설정들을 익히고 연기를 하는 게 익숙했다. 이번에는 독립적인 연기를 했다”며 “오로지 내 역할로서 내가 꾸려나가는 인물을 연기해서 재밌었다. 내가 콘셉트를 만들어서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는 게 더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안녕? 나야’는 어른들의 성장극을 따뜻하게 담아냈다는 평을 받았다. 통상 타임슬립물은 미래로 가는 이야기가 빈번한데 이번 드라마는 ‘과

거서 온 나’에 중점을 두고 성장하는 과정을 그렸다.

이레는 “10대의 소녀가 자신이 기대한 모습이 아닌 20년 후 자기를 만나는 설정이었다. 나 또한 막연히 ‘내 미래는 무조건 빛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20년 후 기대한 내 모습이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나를 더욱 사랑하고 응원하는 법을 배우게 됐다”고 떠올렸다.

이레가 연기한 17살 반하니는 솔직하고 통통 튀는 매력이 돋보이는 인물이다. 이레는 캐릭터와 성격이 닮았다고 묻자 “반반인 것 같다”며 “17살 반니는 자존감이 높고 본인도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밝은 부분은 비슷한데 나는 어두운 면도 있다. 하니까 예의 바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하나는 학교에는 소위 쿼커가 인데 나는 엑스트라 정도다. 평범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며 활짝 웃었다.

같은 인물을 연기한 최강희와의 싱크로율에 대해서는 “멀리서 보면 비슷하게 가까워서 보면 다른 것 같다”며 “선배님은 눈도 크시고 얼굴도 엄청 작으시다. 내 눈에는 장점만 모은 것 같다. 너무 감사하게도 (주변에서) 닮았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최강희와의 호흡에 대해선 “둘 다 낮을 가려서 어떻게 다가야할지 고민했다. 함께하는 장면이 많아서 가까워지고 싶었는데 선배님이 스텝없이 먼저 다가가 주셔서 편하게 연기했다”며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고 배려하는 순수한 마음이 이렇게 크게 다가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촬영장의 워밍업 같은 존재였다”고 밝혔다.

김영광, 음문석과의 호흡을 묻는 질문에도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셨다. 현장에서 굉장히 예뻐 받고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다. 그래서 더 자

연스러운 연기가 나왔다”고 고마워했다.

앞서 이레는 제작발표회에서 최강희가 자신을 칭찬하자 눈물을 보였다. 당시에 대해 묻자 이레는 “선배님께서 저를 아낀다고 해주시니까 감동을 많이 받았다”며 “최강희 배우님께 배우 이레와 16살의 마음 어린 이레를 다 보여줬다.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힐링이 됐다. 존재만으로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분이구나”고 회상했다.

“최강희 배우님이 제게는 화려한 커리어를 자랑하시는 대선배님이신데 친한 동네 언니, 교회 언니처럼 너무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앞으로도 이 인연을 꼭 이어나가고 싶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과 대사로는 할머니 이흥년(김용림)이 반하니에게 해주는 위로의 말을 꼽았다.

“할머니가 하니에게 ‘도망칠 수 없는 고통과 마주해야 할 때가 있다. 두 눈을 꼭 감고 마음속으로 딱 셋까지만 세. 다시 눈을 뜨면 우리 하니는 조금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해준 말이 떠올라요. 저도 힘을 얻고 위로받은 것 같아요.”

이어 20년 후에 나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을 언급하며 “나도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쓰고 위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20년 후 어떤 위치에 있는지 뚜렷하고 당당한 사람이 됐으면 한다. 또 행복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았으면 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2012년 드라마 ‘굿바이 마블’로 데뷔한 이레는 어느덧 연기 인생 10년차를 맞이했다. 2006년생으로 올해 고등학생이 된 이레는 아역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데 대한 고민이나 부담은 없을까.

“부담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저 역할과 작품에 충실한 뿐이에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흥미로워서 연기를 시작했거든요. 하다 보니 힘든 순간도 있지만 먼 미래의 나를 다져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이겨내고 있어요. 그동안 밝은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어두운 역할도 해보고 싶어요.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아이유와 같은 역할이요. 아역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시기라 로맨스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차기작은 넷플릭스가 연상호 감독과 손잡고



선보이는 새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이다. 이레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

다.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볼만한 재미있는 작품이다”며 기대감을 덧붙였다.



‘놀면 뭐하니’ 유야호, 김범수 등 줄줄이 탈락시켜

가수 김범수·케이윌, 배우 박은석, 개그맨 김해준이 MBC ‘놀면 뭐하니’ MSG워너비 오디션에서 줄줄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지난 10일 방송된 ‘놀면 뭐하니’에서는 남성 보컬 그룹 ‘MSG워너비’ 결성 프로젝트 2차 블라인드 오디션이 열렸다.

톱10위 유야호는 KCM으로 의심되는 하정우와 일대일 면접을 진행했다.

익숙한 아재 개그를 투척하고, KCM의 히트곡 ‘흑백사진’을 부른 하정우에게 유야호는 “KCM아니냐”며 압박했다. 그러자 하정우는 안절부절못하다 자체 음성 변조로 끝까지 정체를 사수하려 애썼다.

아이돌을 뽑는 줄 알고 왔다는 김남길은 낮가림이 있다면서도 가성의 ‘유야호’를 뽑내며 남다른 텐션을 드러내는 가 하면 흔들리지 않는 사랑 보이스로 유야호와 ‘점점’을 부르며 마성의 바이브를 자랑했다. 역시도발 댄스부터 분산탈출 개인기까지 없던 김남길의 상상초월 낮가림(?) 매력이 유야호의 잇몸만큼 웃음을 불렀다.

이어 2차 블라인드 오디션이 열렸다.

유야호는 첫 번째 지원자 류준열의 노래에 “고음과 맞짱을 뜨고 있다. 기준에 없던 새로운 목소리”라며 합격을 외쳤다. 두 번째 지원자 짐 캐리 역시 깔끔한 고음으로 유야호를 사로잡았다.

세 번째 지원자 류승룡의 노래를 들은 유야호는 “콧소리를 내는데 정준하보다 영한 콧소리”라며 개그맨 김해준임을 예상하며 탈락을 외쳤고, 이어진 노주현의 노래에는 “이분은 요즘 목소리”라며 합격시켰다.

유야호는 지원자 마동석에게 “낮은 목소리”라면서도 탈락을 외쳤다. 마동석의 정체는 드라마 ‘펜트하우스’의 로건 리 박은석. 유야호는 “내가 로건 리를 떨어뜨리다니 속이 쓰리다”면서도 “내 귀가 반응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이동욱 지원자와 김정민 목소리로 유야호를 혼란에 빠트린 이승기 지원자는 면접 후 결정 키로 했다.

시작부터 넘사벽 고음을 뽑낸 지원자 현빈을 노래를 들은 유야호는 “반열에 오른 분은 안된다”며 탈락시켰는데, 현빈의 정체는 ‘가창력 끝판왕’ 김범수였다.

‘종이’를 부른 지원자 김수현을 본 유야호는 그가 케이윌임을 금세 눈치채고 탈락시켰다.

유야호는 진성과 가성을 넘나드는 노래를 부른 이제훈과 시원한 고음을 보여준 차승원, 화려한 고음 스킬을 보여준 이시연을 메인 보컬감으로 뽑았다. 다음주에는 레전드 남성 보컬 그룹 SG워너비와 유야호의 특급 만남이 예고됐다.

‘독립만세’ 박수홍 “2년 전 다홍이 만나며 진정한 독립”

오늘 오후 9시 ‘초보 독리버들의 절친 특집’에 출연해

박수홍이 2년 전 다홍이를 만나며 진정한 독립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수홍은 12일 방송될 JTBC 예능프로그램 ‘독립만세’에서 초보 독리버들의 절친 특집에 출연한다.

이 자리에서 박수홍은 독립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2년 전 반려모 다홍이를 만나며 진정한 독립을 이뤘다고 말했다.

“다홍이 아빠”인 그는 다홍이가 온 이후 자연스럽게 변화한 독립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녹화장에 함께 왔다는 사실을 밝혀 뜨거운 관심을 받는다.

이에 ‘독립만세’ 스튜디오에서 다홍이와의 동반 출연이 성사될지 기대가 모아진다. 박수홍은 끝없이 다홍이 자랑도 한다. 그는 다홍이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낸다거나 교체해야 할 공기청정기 필터를 알려준다는 등 귀를 의심케 하는 다양한 천재성을 제기했다.

마당이 있는 송은이의 독립 하우스를 부러워하는 이유도 다홍이 때문으로 기승전 ‘다홍이인 그의 활약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방송은 송은이의 절친 박수홍 뿐 아니라 약동뮤지션의 절친 워너 김승윤도 합

께 했다.

강승윤은 워너의 ‘뽐’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던 수현과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호흡을 맞춘 후 어색하다는 속마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정작 수현은 “하나도 안 어색하다”고 답해 깨알 웃음을 안긴다. 충격받은 강승윤은 “나만 진심이었다”라고 외치며 유쾌한 리액션으로 폭소를 자아냈다.

또 수현이 키스친 촬영 당시 멋짐이 폭발했던 강승윤의 비하인드를 전한다고 해 벌써부터 설렘 지수를 상승시키고 있다.

‘독립만세’는 12일 오후 9시 방송된다.

뉴스스

스테이시 ‘스테이덤’, 아이튠즈 K팝앨범 차트 1위



결그룹 ‘스테이시(STAYC)’가 국내외에서 부

상하고 있다.

10일 소속사 하이업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스테이시가 최근 발매한 두 번째 싱글 ‘스테이덤(STAYDOM)’이 지난 9일 아이튠즈 톱 K-팝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월드와이드 앨범 차트에는 6위로 진입했다.

또 스테이시는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Spotify)의 K팝 플레이리스트의 메인 커버를 장식하기도 했다.

스테이시가 지난 8일 발매한 ‘스테이덤’의

타이틀곡 ‘에이셉(ASAP)’은 벅스 5위, 지니 17위, 멜론 최신 24히트 차트에 진입하는 등 주요 음원사이트 실시간 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에이셉’ 뮤직비디오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조회수 630만부를 돌파했다. ‘에이셉’은 블랙 아이드 필름스와 전군이 프로듀싱한 곡이다. 청량한 사운드가 돋보인다. 스테이시는 지난 9일 KBS 2TV ‘뮤직뱅크’ 출연을 시작으로 컴백 활동에 나섰다.

엔하이픈, 앨범 선주문 자체 기록...5일 만에 40만장 ↑

‘보더 : 카니발’, 오는 26일 공개

그룹 ‘엔하이픈(ENHYPEN)’이 앨범 선주문량 관련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10일 소속사 빌리프랩에 따르면, 지난 5일 예약 판매가 시작된 새 앨범 ‘보더 : 카니발(BORDER : CARNIVAL)’의 선주문량이 5일 차인 지난 9일 40만 장을 돌파했다. 엔하이픈은 예약 판매 3일 차인 지난 7일

선주문량 37만장을 넘기며 흥행을 예고했다.

지난해 11월 발매된 데뷔 앨범 ‘보더 : 데이원(BORDER : DAY ONE)’의 경우 선주문량 30만 장을 돌파하는 데 20일이 걸렸다.

5개월 만에 발표하는 이번 앨범은 단 5일 만에 선주문량 40만 장을 기록했다.

‘보더 : 카니발’은 오는 26일 공개된다.

뉴스스

